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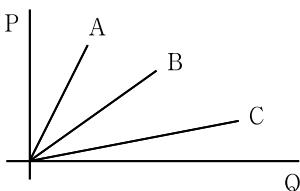
경제학원론

- 문 1. 솔로우 성장모형을 따르는 A국은 최근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해 자본스톡의 10%가 파괴되었다. A국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었으며 인구증가율, 저축률, 감가상각률 등 경제 전반의 펀더멘털(fundamentals)은 바뀌지 않았다. 향후 A국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외생적 기술진보율은 0이라고 가정한다)
-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정상상태로 향할 것이다.
 -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높은 정상상태로 향할 것이다.
 -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낮은 정상상태로 향할 것이다.
 -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문 2. A시장에는 동질적인 기업들이 존재하고 시장수요함수는 $Q = 1,000 - P$ 이다. 개별기업의 장기평균비용함수가 $c = 100 + (q - 10)^2$ 일 때,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단, Q는 시장수요량, q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낸다)
- 10
 - 90
 - 100
 - 900

- 문 3.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나이가 만 15세이므로 자동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 B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로 실업률 계산에 포함된다.
 - C는 전업 주부이므로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총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문 4. 다음 그림은 가로축에 공급량(Q), 세로축에 가격(P)을 나타내는 공급곡선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급곡선 A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C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보다 높다.
- 공급곡선 C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A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보다 높다.
- 공급곡선 B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C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 보다 높다.
- 공급곡선 A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B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과 같다.

- 문 5.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총생산이 상승하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
 - 실질국내총생산은 명목국내총생산보다 항상 작다.
 - 밀수, 마약거래 등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에서 생산되는 것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 자가 주택의 경우, 귀속가치(imputed value)를 계산하여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다.

- 문 6. A군은 친구가 하는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사업이 성공하면 A군은 0.5의 확률로 196만 원을 돌려받고, 사업이 실패하면 0.5의 확률로 64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A군의 효용함수가 $U(y) = 10y^{0.5}$ 이고 y 는 소득을 나타낸다. 이 투자기회에 대한 A군의 확실성등가와 위험프리미엄은?

확실성등가	위험프리미엄
① 110만 원	9만 원
② 110만 원	20만 원
③ 121만 원	9만 원
④ 121만 원	20만 원

- 문 7. A국의 경제는 $C = 0.7(Y - T) + 25$, $I = 32$, $T = tY + 10$ 으로 표현된다. 완전고용 시의 국민소득은 300이며, 재정지출은 모두 조세로 충당할 때, 완전고용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t 는?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t는 소득세율을 나타낸다)

- 1/5
- 1/4
- 1/3
- 1/2

- 문 8. 다음 표는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 이전의 조선과 해외 열강에서 생산되는 X와 Y 상품 단위 당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강화도 조약 이전에는 조선과 해외 열강 사이에는 교역이 없다가, 이 조약에 따라 개항이 이루어졌다. 이를 국가에 오직 X와 Y 두 상품만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일어났을 상황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상품	
	X	Y
조선	10	20
해외 열강	10	10

- 조선은 개항 이후 수출 없이 수입만 했을 것이다.
- 조선에서 두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모두 높으므로, 두 재화 모두 해외 열강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다.
- 조선은 개항에도 불구하고 무역 없이 자급자족 상태를 이어나갔을 것이다.
- 조선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높은 재화를 수입했을 것이다.

- 문 9. 다음 중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론과 관련된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규모의 경제
- ㄴ. 불완전 경쟁
- ㄷ. 레온티에프 역설
- ㄹ. 생산요소집약도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문 10. 최근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미래가치에 대한 분산(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다. 세 프로젝트 중 2개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단,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동일하고 프로젝트 간 분산 및 공분산 행렬(variance covariance matrix)은 아래와 같다)

구분	중동	동남아	남미
중동	0.4	—	—
동남아	0.5	0.6	—
남미	0.25	0.4	0.2

- ① 프로젝트 중동과 동남아
- ② 프로젝트 중동과 남미
- ③ 프로젝트 동남아와 남미
- ④ 세 프로젝트 모두 차이가 없음

문 11. 현재 환율은 1달러 당 1,000원이고, 미국의 연간 이자율은 5%이다. 내년 환율이 1달러 당 1,020원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 평형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원-달러 환율시장의 균형을 달성시키는 국내 이자율(%)은?

- ① 5
- ② 7
- ③ 9
- ④ 10

문 12. 화폐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 ② 경기가 좋아지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 ③ 이자율이 증가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 ④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문 13. 2014년 기상 여건이 좋아 배추와 무 등의 농산물 생산이 풍년을 이루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위 ‘풍년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 ① 가격의 하락과 탄력적 공급이 지나친 판매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 ② 가격의 하락과 비탄력적 공급이 지나친 판매량 감소를 초래하였다.
- ③ 공급의 증가와 탄력적 수요가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초래하였다.
- ④ 공급의 증가와 비탄력적 수요가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초래하였다.

문 14. A국의 소득세는 $T = \max[0, 0.15(Y - 1,000)]$ 의 식에 따라 결정된다. 즉, 연소득 1,000만 원까지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1,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소득세 제도의 1,000만 원 이상 소득구간에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T는 세액, Y는 소득이다)

- | | |
|----------|----------|
| <u>↑</u> | <u>↔</u> |
| ① 누진적 | 누진적 |
| ② 누진적 | 비례적 |
| ③ 비례적 | 비례적 |
| ④ 비례적 | 누진적 |

문 15.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 합리적 기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경우 고통 없는 인플레이션 감축이 가능하다.
- ② 단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 ③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장기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
- ④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적응적 기대에 의한다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모두 낮추려는 정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문 16. A기업의 생산함수는 $Y = \sqrt{K+L}$ 이다. 이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나타낸다.
- ② 자본과 노동은 완전보완관계이다.
- ③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본과 노동 중 하나만 사용해도 된다.
- ④ 등량곡선(iso-quant curve)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문 17. 다음 표는 생산함수가 $y = z\sqrt{k}\sqrt{h}$ 로 동일한 두 국가(A국과 B국)의 1인당 GDP(y), 1인당 물적자본스톡(k), 1인당 인적자본스톡(h)을 나타내고 있다. B국의 1인당 GDP가 A국의 1인당 GDP의 2.4배라고 할 때, B국의 생산성은 A국 생산성의 몇 배인가? (단, z 는 생산성을 나타낸다)

구분	A국	B국
1인당 GDP(y)	100	()
1인당 물적자본스톡(k)	100	100
1인당 인적자본스톡(h)	25	64

- ① 1.2
- ② 1.5
- ③ 2.0
- ④ 2.4

문 18. 폐쇄경제인 A국은 스마트폰과 택배 서비스만을 생산하며, 생산량과 가격은 다음 표와 같을 때, 2013년 실질GDP와 2014년 실질GDP는? (단, 기준년도는 2013년이다)

구분	2013년	2014년
스마트폰 생산량	10	10
택배 서비스 생산량	100	120
스마트폰 개당 가격	10만 원	9만 원
택배 서비스 개당 가격	1만 원	1.2만 원

	2013년 실질GDP	2014년 실질GDP
①	200만 원	234만 원
②	200만 원	220만 원
③	210만 원	234만 원
④	230만 원	260만 원

문 19. 다음의 조건을 지닌 만기 3년짜리 채권 중 가격이 가장 싼 것은? (단, 이표(coupon)는 1년에 1번 지급하며, 이표율(coupon rate)은 액면가(face value) 대비 이표 지급액을 의미한다)

액면가	이표율	금리
① 10,000원	10%	10%
② 10,000원	8%	8%
③ 10,000원	10%	7%
④ 10,000원	8%	10%

문 20.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정액세로 조달되는 경우와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 ②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③ 정부지출의 변화 없이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면 경제주체들은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모두 저축하여 미래의 조세증가를 대비한다고 주장한다.
- ④ 현재의 조세감면에 따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경우 후손들의 후생에 관심 없는 경제주체들에게는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